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 변화 양상 분석*



1.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분석의 필요성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의 최종 합격 결과를 발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공고문에 따르면, 초등 사회과 3~4학년군에서는 총 8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를 전시하고, 교사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교과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나경훈
호연초등학교 교사

*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연구 제 31권 4호(2024. 11)에 게재된 나경훈(2024)의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그런데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교과서 검정 제도의 장점(조난심 외, 2004)을 초등교사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2015 교육과정 내에서 개발된 검정 교과서들이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캐릭터를 보고 교과서를 고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에듀인뉴스, 2019).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국정 교과서라는 ‘모범안’이 개발된 이후 검정 교과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 간 편차가 뚜렷이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 개발은 이전 시기와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대폭 축소하였고, 내용을 대강화하여 교사들의 해석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한춘희, 2022).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내용 변화 양상을 일정한 분석틀에 의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 시기 검정 교과서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가시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출판사마다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이 나타났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된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특징과 함의를 정리하였고, 나아가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8종의 교과서로, 이전에 비해 3종이 줄어들었다. 분석 대상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는 <표-1>과 같다.

표 1 —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분석 대상

도서명	대표 저자	저자 수	판형	쪽수				활동자료 수 ¹⁾ (3-2)	가격(원) (3-2)
				3-1	3-2	4-1	4-2		
1 동아출판 ²⁾	박영석	15	215×280	153	153	163	162	15 (활동자료 주머니)	10,910
2 미래엔	전종한	14	220×280	156	156	164	155	10 (활동자료 주머니)	10,840
3 비상교육	설규주	13	220×285	147	151	162	158	12	10,900
4 아이스크림	한춘희	14	215×280	161	162	162	162	13	11,460
5 와이비엠	남상준	15	215×280	160	161	163	161	10 (활동자료 주머니)	10,300
6 지학사	이간용	15	215×285	150	151	157	154	10	11,350
7 천재교과서	김정인	18	215×285	154	160	162	160	12 (활동자료 주머니)	12,290
8 천재교과서	박기범	16	215×285	159	160	163	158	14 (활동자료 주머니)	11,880

나. 분석 방법과 분석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³⁾과 질적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구체화한 분석 기준은 <표-2>와 같다.

표 2 — 교과서 분석 기준

영역	분석 방법	분석 항목	분석 기준
구 성 체 제	내용 조직	표지 구성	표지 구현 방식(캐릭터 및 내용 삽화 등)
		차례명	대단원에 따른 주제명 비교
		단원 구성 방식	단원 전개의 흐름과 구성 방식
		차시 구성 방식	차시의 흐름(도입-전개-정리) 구성 방식
	내용 전개	차시명 진술 방식	질문형, 서답형, 개념 진술형, 개념 미포함 진술형 등
		본문 서술 방식	설명식, 혼합식(설명형+화자 설정형), 내러티브식 등
	활동 구성	단원 도입 및 정리 활동 유형	사실, 개념 및 원리 확인(발견)형, 학습자 구성형, 심화보충형, 인지·기능·정의적 능력 점검 요소 등
		주제 도입 및 정리 활동 유형	
		차시별 활동 유형	

1) 활동자료의 수는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났던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 이후 교과서의 사례를 제시할 때는 모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동아출판=A, 미래엔=B, 비상교육=C, 아이스크림=D, 와이비엠=E, 지학사=F, 천재교과서(김)=G, 천재교과서(박)=H'.

3) 양적 분석의 기준은 이전의 선행 연구(이종일·정호범·고영호, 2004; 김재춘 외, 2007; 김현애, 2013)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동원(2017)의 분석 준거와 이를 수정한 나경훈(2021)의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 변 화	질적 분석	스케일 설정 여부	3학년과 4학년에서 지역의 스케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내용의 중복성 문제	‘국가 유산 찾기’ 활동과 ‘박물관 조사하기’ 활동의 방향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4학년 1학기 2단원)
			‘주민 자치 참여’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 활동의 중복성을 어떻게 탈피하고 있는가?(4학년 2학기 1, 2단원)
		신설 성취기준의 적용 양상	역사 학습의 기초 개념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3학년 1학기 2단원)
		학생들의 수준 고려 여부	학생 수준을 상회하며 지리 정보 분석에 활용되는 수학적 사고 개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4학년 1학기 1단원)

3. 분석 결과⁴⁾

가. 구성 체제

1) 내용 조직

구성 체제의 ‘내용 조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 구성’, ‘차례명’, ‘단원 구성 방식’, 그리고 ‘차시 구성 방식’에 대해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양상을 제시하면 <표-3>과 같다.

표 3 —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



4) 지면 관계상 모든 분석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5) 차시 개수는 교과서별로 상이하였다.

이번 검정 교과서에서도 <표-3>처럼 기존의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과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단원 도입 및 정리 내용을 모두 학습자 활동형으로 구성하고 있어 이전 교과서보다 더욱 유사성이 두드러졌다. 이전 교과서에서는 단원 도입을 생략하고 ‘단원 명’과 ‘관련 삽화’만 제시하거나, 주제 도입을 간략히 하여 단순히 지나치는 구성 방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에서는 할당된 페이지의 양만 다를 뿐, 모든 교과서에서 ‘단원 도입, 주제 도입, 주제 정리, 단원 정리’를 학습자 활동형으로 구성 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내용 전개

구성 체제의 ‘내용 전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차시명 진술 방식’과 ‘본문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본문 서술 방식에 대한 양상을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 4 —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본문 서술 방식

유형	도서명
설명식	A, B, C, D, E, G, H
혼합식(설명형/화자 설정형)	F

본문 서술 방식은 크게 ‘설명식, 혼합식(설명형+화자 설정형), 내러티브식(스토리텔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교과서에서는 본문에 특정 화자를 두지 않고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는 ‘설명식’ 구성이 가장 많았으며, ‘지안이는~’ 등의 특정 화자를 설정하여 설명식 서술과 병합하는 혼합식 구성도 나타났다. 또한 특정 출판사에서는 본문 전체를 내러티브식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나경훈, 2021, 38). 하지만 이번 교과서의 본문 서술 방식은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특정 화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는 ‘설명식’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혼합식 구성을 나타낸 F 교과서에서도 차시 도입의 첫 문장⁶⁾에서만 특정 화자를 드러내고 이후에는 설명식 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6) 예를 들어, ‘지성이와 수민이는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3) 활동 구성

구성 체제의 ‘활동 구성’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단원 도입 및 정리 유형과 주제 도입 및 정리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단원 도입 및 정리 유형에 대한 양상을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 5 — 초등사회과 검정 교과서 단원 도입 및 정리 유형

도서명		단원 도입		단원 정리	
		활동	쪽수	활동	쪽수
1	A	(특별부록), 다양한 활동 (단원 책갈피 만들기)	4	생각 그물, 교실 놀이(부록), 창의 융합, 자기 평가	4
2	B	숨은그림찾기 (오늘 활동 붙임딱지)	4 (접지)	생각 그물, 평가(문제 풀이), 창의 융합	6
3	C	다양한 활동	2	생각 그물, 교실 놀이	4
4	D	숨은그림찾기 (차시명 찾기 활동)	6 (접지)	생각 그물, 교실 놀이	4
5	E	숨은그림찾기	2	생각 그물, 교실 놀이, 창의 융합	6
6	F	숨은그림찾기	2	생각 그물, 창의 융합	4
7	G	(특별부록), 숨은그림찾기	2	정리(빈칸 넣기), 창의 융합	4
8	H	미로 탈출	4 (접지)	창의 융합, 단원 정리	4

단원 도입이나 정리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활동 지면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단원명과 삽화만 제시하여 단원 간의 구분을 위한 지면으로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제작의 방향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이전 교과서의 경우, 단순히 단원 간의 구분을 위해 단원 도입을 활용한 교과서도 있었으며, 한 차시 분량의 단원 도입 활동을 구성한 교과서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모든 교과서에서는 활동의 유형은 조금씩 달랐지만, <표-5>처럼 모든 교과서에서 놀이 및 흥미 중심의 활동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내용 변화

내용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스케일 설정 여부, 내용의 중복성, 역사 학습의 기초 구성, 학생들의 수준 고려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역사 학습의 기초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도 ‘역사 증거’와 관련된 내용 흐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두 교과서의 차시 흐름을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 6 — ‘역사 증거’ 관련 B, H 교과서의 차시 흐름 비교

	3학년 1학기 2단원 2주제 ‘역사 증거’	
	B 교과서	H 교과서
차 시 의 흐 름	과거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과거 모습을 알려주는 물건과 자료를 알아볼까요
	오래된 물건을 통해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나의 과거 모습을 알아보고 나타내 볼까요
	일기와 편지를 통해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과거 모습을 알려주는 오래된 물건을 찾아볼까요
	사진과 그림을 통해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자료를 활용해 과거 모습을 알아볼까요
	노래 가사와 신문 기사를 통해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자료를 비교하여 과거 모습을 설명해 볼까요
	건축물을 통해 과거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과거를 연구할 때 어떤 물건과 자료를 살펴봐야 할까요

이 주제에서는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H 교과서처럼 나의 과거 모습을 알려주는 물건을 찾아보거나, 주변의 오래된 물건, 할머니가 쓰셨던 일기 등을 통해 과거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반면, B 교과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넘어, 실제 사료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일기와 편지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때는 ‘난중일기’나 ‘연암선생서간첩’을 활용하였고, 그림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때는 ‘서당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새로 등장한 성취기준에 대한 해석 양상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은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논의: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 체제의 ‘내용 조직’ 측면에서 모든 교과서가 유사한

짜임새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캐릭터가 부각되는 표지를 활용하였으며, 주제명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차례명은 모두 비슷하였다. 단원 구성 방식은 모든 교과서가 흡사하였으며, 차시 구성 방식은 도입 질문과 활동의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검정 교과서에서도 나타났던 일종의 ‘클리셰’가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도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그동안 익숙했던 구조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체제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검정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큰 폭의 변화보다 익숙함을 지향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내용 조직 측면의 창의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구성 체제의 ‘내용 전개’ 측면에서 모든 교과서가 일관된 흐름을 나타냈다. 내용 전개 측면에서 바라본 차시명 진술 방식은 ‘개념을 넣은 의문형’으로 동일하였고, 본문 서술 방식은 대부분 ‘설명식’ 구성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냈던 이전 교과서의 내용 전개 방식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교과서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간주하여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초등학교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시들이 연속되며 이야기식 플롯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차례대로 빠짐없이 가르치길 전제하고 제작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과서 차시를 재배열하거나, 생략 및 보완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연계되고 흐름이 있는 스토리 형식의 구성보다, 설명식 구성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서술 방식을 비롯하여 차시명에서도 모든 교과서가 동일한 지향성을 갖고 비슷하게 제작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미 여러 번 검정 교과서의 변화를 거친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단원 구성 체제와 내용 제시 방식이 매우 정형화되어 큰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강대현·은지용, 2020, 27). 검정 교과서 개발시 이전 교과서를 분석하며 가장 채택률이 높고 현장의 반응이 좋은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검정 교과서 본래 취지(조난심 외, 2004)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셋째, 구성 체제의 ‘활동 구성’ 측면에서 모든 교과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원 도입 및 정리 활동, 주제 도입 및 정리 활동을 생략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모두 놀이 활동과 같은 흥미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

었으며, 교과서 본문을 뒷받침하거나 사회과 기능(역량)을 강조한 본문 활동이 매 차시마다 제시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교과서 개발 방향성을 뚜렷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입 및 정리 활동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구성하고, 차시 내에서 개인 혹은 친구와 함께 활동하기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학생 참여형’, ‘학생 활동형’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별도의 워크시트(활동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초등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시 ‘교과서 학습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문현진 외, 2022).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활동이 본래의 학습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개 교과서의 많은 활동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학생들의 시간만 빼앗아가는 것,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Brophy & Alleman(1991)의 지적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소책자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전시관 꾸미기 등과 같은 활동이 그 차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과서 차시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거나, 이전 교과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현된 디지털 기기 활용 활동들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본래의 학습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 변화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학생 수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교과서마다 나타났다. 먼저 3~4학년군에 제시된 지역의 스케일은 무리하게 구분하기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융통적으로 다루어졌다. 3학년에서는 우리 지역의 친숙한 장소를 활용하여 더 좁게 들여다본 경우도 있었으며, 4학년에서는 도 단위 내에서 또는 도 단위를 넘나들며 스케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역사 영역과 4학년 2학기 지역문제 해결 관련 주제에서는 내용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활동 방법 및 조사 내용, 문제 상황의 수준을 달리하며 구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교과서에서는 내용 및 활동 방법이 동일하여 중복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에 신설된 역사 학습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주제는 교과서마다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역사 증거’와 관련된 주제는 차시의 흐름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었던 ‘지리 정보’ 주제는 수학적 개념을 강조하기보다, 직관적

인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지리 정보 개념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조사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따라 교과서 차시 흐름이 달라졌다.

이처럼 이번 교육과정의 대강화 및 성취기준 축소 방침은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신설되었거나 수정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의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획일성을 벗어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점정 교과서 제도의 전제 조건은 유연한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사회과 점정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내용 변화 양상을 일정한 분석틀에 의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사회과 점정교과서 8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활동형 교과서를 표방하며 이전보다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고, 반면 교과서의 '내용'은 신설되었거나 수정된 성취기준에서 이전보다 변화의 폭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채택률을 고려하고 점정제도 심사를 염두에 둔다면 교과서 구성 체제 측면에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대강화 및 성취기준 축소 방침은 교과서의 내용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점정 교과서 선정 기준은 교과서 구성 체제보다, 교과서 내용 변화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내용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선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특히 계속해서 교육과정 내용 요소로 편제되었던 부분은 교과서가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차 공론화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1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초등교사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교사들이 과목별 점정 교과서의 특징점을 묻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자, 한 교사가 각 교과서에 평점을 매기고 비교 분석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개설 직후 많은 교사들의 호응을 얻으며 활발히 이용되었다. 교사들은 해당 사이트에 댓글과 평점을 남기며 교과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공개적으로 축적되면서, 사건

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사이트는 곧 폐쇄되었다. 특히 사이트를 개발한 교사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60년 접근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해프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등교사들이 여러 검정 교과서 중 특정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배경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보다 대중적이고 많은 교사들이 인정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틀(준거)이 통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교사들이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공유하고, 교과서를 다각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초등교사들은 사회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러 과목을 심사하고 선정하고 있다. 교사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과서 선정 심사를 위해 학문적 차원이 아닌,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 판단 기준을 공유하고 교과서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정 교과서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 선정 작업에도 큰 변화없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학습의 목표와 활동이 유의미한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정 교과서에는 한 차시 안에도 2~3개의 활동이 삽입되어 무수히 많은 활동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본래 학습의 의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개념을 생성시키는데 일조한다면 반드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과서 학습 목표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활동의 정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 검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이후에 개발되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교과서 개발이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초등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던 문현진 외(2022)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전 검정 교과서와 달리 구성 체계의 변화

보다 내용 변화의 폭이 큰 상황에서 교사들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초등사회과 개발과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 과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대현·은지용(2020). 사회과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와 내용 제시 방식 분석-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2(1), 1-35.
- 김재춘·곽병선·박소영·김라경(200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 2005-5.
- 김현애(2013). 초등 사회과 교과서 역사영역 비교분석: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4(3), 73-99.
- 나경훈(2021). 검정제도 시행에 따른 초등사회과 교과서 구성체계 및 내용변화 양상 분석: 2022년 적용 예정인 초등사회과 3-4학년군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3(4), 27-53.
- 문현진·김영빈·이병민·이승현(2022). 초등교사의 사회과 검정 교과서 선정 경험 연구. 교원교육, 38(2), 159-183.
- 에듀인뉴스(2019). “초등 교과서 2022년 검정 전환…현장’검정제 필요한가 vs 자유발행 시기상조”, (2019. 01. 03.).
- 이동원(2017). 초등 사회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국제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56(4), 39-60.
- 이종일·정호범·고영호(2004). 외국 초등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분석-미국·일본·프랑스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1(1), 153-195.
- 조난심·송현정·홍후조·김지현(2004).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리포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 제 2024-88호.
- Brophy, J., & Alleman, J.(1991). A caveat: Curriculum integration isn't always a good idea. *Educational Leadership*, 49(2), 66-67.

필자 소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장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사회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